

디자인 수사학의 논의와 전망

Overview of Design Rhetoric

강현주 (Kang Hyeon-Joo)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목차

머리말: 현대 디자인과 디자인 수사학

제1장 디자인 수사학 이해의 기초로서의 수사학 이론

- 1-1. 서구 고대 철학의 수사학적 전통
- 1-2. 중세 이후 근대까지의 수사학
- 1-3. 20세기 중반 이후의 수사학 이론

제2장 20세기 후반의 디자인 수사학 논의와 그 적용

- 2-1. 기 본시페와 시각 수사학
- 2-2. 리처드 부캐넌과 디자인 수사학
- 2-3. 생 주스트 아카데미의 디자인 교육

맺음말: 디자인 수사학과 디자인학의 가능성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시 활발해진 인문학에서의 수사학 논의와 디자인 수사학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디자인학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디자인계에서는 디자인 연구의 성격과 디자인학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디자인 수사학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제1장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까지 수사학이 꽃피웠던 시기와 수사학이 종합적인 인문교육에서 중요성을 띄고 일반적인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었던 근대 시기, 그리고 수사학이 다시 부흥하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수사학 이론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검토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기 본시페의 시각 수사학과 리처드 부캐넌의 디자인 수사학 논의를 살펴보고 수사학적 접근 방식을 실제 디자인 교육에 접목시킨 생 주스트 아카데미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디자인 수사학 연구가 디자인학의 정립에 있어서 유용한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Abstract)

Rhetoric, simply defined, is the art of persuasion. Gui Bonsiepe, Robin Kinross, Hanno Ehses and Richard Buchanan have all spoken of rhetoric as an element of the theory of design. St. Joost Academy in the Netherlands has tried to prese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a new kind of designing based on rhetoric since 1995. Post-St Joost was the name of the experimental graduate programme. They adopted visual rhetoric as a matrix for setting up a new type of exercise and assignment in design education.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show that rhetorical approach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a view of design as a discipline in its own right. The first chapter looks at the brief history of rhetoric in western culture. And the following chapt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design rhetoric and visual rhetoric in the twentieth century. I hope this essay will contribute to find the designerly way of knowing, thinking and doing.

(Keyword)

Design Rhetoric, Visual Rhetoric, Guy Bonsieppe, Richard Buchanan, St. Joost Academy

머리말: 현대 디자인과 디자인 수사학

디자인 분야에서는 시각언어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각 수사학 Visual Rhetoric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시각기호학 연구자들이 분석철학, 지각현상학, 인지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을 도입하면서 시각연구에 있어 의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법칙 또는 규칙의 존재를 해명하려는 과정에서 일반 수사학과 의 연계를 시도했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의미에 대한 인지과학의 접근은 지각, 정서성, 기억, 인공지능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시각기호론자들과 디자이너들은 시각언어의 해독과 활용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¹⁾

하지만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 수사학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바우하우스의 전통을 계승하여 설립되었던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학교인 울름조형대학의 교수였던 기 본시페 Guy Bonsieppe는 1965년에 「시각/언어 수사학 Visual/Verbal Rhetoric」²⁾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이 글을 통해 시각 수사학이 언어 수사학의 기초 위에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각 수사학의 필요성에 대한 기 본시페의 논의는 디자인이 점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전 과정에 관계되는 의미작용에 관한 통합 학문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시각 수사학과 더불어 디자인 수사학 Design Rhetoric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디자인 수사학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디자인 연구자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인 리처드 부캐넌 Richard Buchanan이다. 디자인을 산업·기술 문화에 관한 새로운 인문학이라고 보는 그는 모든 디자인 사고 design thinking에 내재해 있는 수사학적 차원을 도출시킴으로써 디자인학을 휴머니즘의 기획으로 새롭게 개념화시키고자 한다. 그에게 있어서 20세기 디자인의 발전은 곧 인공세계의 개념설정과 계획을 향한 새롭고 다양하며 광범위한 수사학적 형태의 탐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디자인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철학의 핵심적 요소이며, 그 문화는 개개인에게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공동체적 경험의 질을 탐구하는 힘의 확장을 지향한다고 말했다.³⁾

기 본시페가 언급한 시각/언어 수사학과 리처드 부캐넌이 주장하는 디자인 수사학은 그 대상 범위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디자인 연구에 언어적이고 수사학적인 접근방식을 적극 도입하고자 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의 이론을 수용하여 디자인 실무나 디자인 교육에 직접 적용시킨 사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각 수사학과 디자인 수사학이 공통적으로 수사학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 수사학이라는 용어는 시각기호론자들의 시각 수사학이나 기 본시페의 시각/언어 수사학, 그리고 교양학문으로서의 디자인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리처드 부캐넌의 디자인 수사학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으로 사용되었다.⁴⁾ 각각의 논의들은 모두 개념적 차원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디자인 논의를 인문학에서의 수사학 이론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차별적인 특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디자인에서의 수사학적 논의들이 인문학에서의 수사학 이론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디자인 수사학이 디자인학의 개념 정립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1장 디자인 수사학 이해의 기초로서의 수사학 이론

수사학을 뜻하는 '레토릭 rhetoric'이라는 말은 어원상으로 '변론'이나 '웅변술'에 연관된 것으로 수사학은 본래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로서 생각을 좀 더 뚜렷하게 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디자인 수사학에 대한 논의에 앞서 본 장에서는 서구에서 수사학이 발전해온 과정과 해당 시기의 수사학의 주제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수사학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연구서로는 김현의 「수사학」⁵⁾, 박성창의 「수사학」⁶⁾, 올리비에 르블의 「수사학」⁷⁾,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와 마리아 데 카르멘 가르시아 테헤라의 「수사학의 역사」⁸⁾ 등이 있다.

1985년에 출판된 김현의 「수사학」은 20세기 중반에 수사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킨 중요한 책이라고 평가받는 「코뮤니카시옹 Communications」지 제 16호(1970)에 실린 글 중 롤랑 바르트, 츠베탕 토도로프, 제라르 쥘네트의 글과 장 루세의 글을 묶어 만든 편역서이다. 이 책의 서문인 「序: 수사학 연구의 방향」에서 김현은 대중문화 분석이 서구에서 수사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 탐정소설, 만화, 광고, 패션 등 대중문화에서는 개인성보다는 유형이 훨씬 더 강조되며 수사학적 용어들은 바로 이러한 대중문화의 여러 유형을 특징지워주는데 큰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서구에서의 대중문화의 성장과 현대 수사학의 발전을 연관시킨 김현의 분석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국내에서 수사학 관련 서적이 활발하게 저술, 번역되는 것은 바로 대중

4) 본 논문에서 '디자인 수사학'이라는 용어는 개념이나 낱말, 그리고 화용론적인 차원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문맥을 통해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보다 정확한 용어 정의와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수사학'의 정의조차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자인 수사학'에 대한 논의 역시 아직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를 심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차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5) 김현 편,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1985.

6)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7) 올리비에 르블 (박인철 역), 수사학, 한길크세주, 1999.

8)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 외 (강필운 역), 수사학의 역사, 문학과지성사, 2001.

1) 김성도, 「영상문화와 기호학」, 교수신문, 1999년 12월 27일, 9면.

2) Gui Bonsieppe, *Visual/Verbal Rhetoric*, *Ulm* 14/15/16, December 1965, p.30 (Victor Margolin (ed.), *Design Discourse: History, Theory, Critic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132에서 재인용.)

3) Richard Buchanan and Victor Margolin (ed.), *Discovering Design: Explorations in Design Stud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247.

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해진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박성창의 『수사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출판된 것이다. 그는 책머리에 ‘사회의 개방성과 다원화가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더한층 가속화되면서 디지털이나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말을 통한 설득이라는 수사학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수사학에 대한 이해는 곧 멀티미디어 시대의 한 패러다임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개론서로서의 형식에 충실한 이 책은 김현의 『수사학』에서 소개된 바 있는 폴랑 바르트의 『옛날의 수사학』과 제라르 주네트의 『즐어드는 수사학』 등의 글과 로만 야콥슨의 언어학과 기호학 이론, 그리고 최근의 수사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20세기 현대 수사학의 주제들을 성실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와 마리아 데 카르멘 가르시아 테헤라의 『수사학의 역사』는 그리스 수사학부터 로마 수사학, 중세 수사학, 그리고 16세기부터 20세기의 수사학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 간의 서구 수사학의 방대한 역사를 연구자 중심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에 비해 올리비에 르볼의 『수사학』은 전통 수사학보다는 현대 수사학 연구에 비중을 둔 이론서로서 르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라 수사학을 논증의 기술로 보는 전통 수사학의 견해와 수사학을 문학 텍스트의 연구 수단으로 보는 현대 수사학의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을 조화시켜 ‘논증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즐거움과 감동을 통해 설득하는 담화’로서 수사학을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연구서들과 그 밖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서구 수사학의 역사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수사학적인 전통이 어떻게 성립되고 이론적으로 변화·발전해갔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그리고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수사학이 인문교육에서 중요성을 띄고 일반적인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어 발전해오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전반적으로 쇠퇴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수사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되면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학제적이고 다원적이며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학문으로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1. 서구 고대 철학의 수사학적 전통

수사학의 탄생과 관련하여 폴랑 바르트는 수사학이 소유권 소송에서 생겨났다고 보았는데 고대 수사학의 기원을 변론, 문학, 철학의 세 가지 원천으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올리비에 르볼에 따르면 이는 바로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시칠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변론으로서의 수사학의 기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송과 재판이 빈번하던 이 시기에 코락스Corax

는 『변론술Rhetotike Teche』이라는 수사학 교과서를 쓰고 말을 통해 사람을 설득시키는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수사학의 문학적 기원은 고르기아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는 구어와 시 밖에 없었던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에서 문학적 산문의 형태를 발견했다고 평가된다. ‘고르기아스적인 산문 형식’을 통해 사람들은 산문도 시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¹⁰⁾ 수사학의 철학적 기원은 소피스트들의 활동을 통해 시작되었다. 오늘날 소피스트라는 말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기도 하지만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시민들에게 소피스트라는 명칭은 문학, 과학, 철학, 그리고 특히 웅변술 등의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적용된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였다.¹¹⁾ 하지만 변론과 웅변술의 대가로 돈을 받던 소피스트들의 활동에 대해 소크라테스나 파에드로스와 같은 동시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았고 플라톤도 수사는 진리와 동떨어져 있으며 ‘말로써 하찮은 것을 중요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을 하찮게 만든다’고 생각했다.¹²⁾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플라톤의 경쟁자였던 이소크라테스는 비록 자신을 반(反)소피스트라고 선언하기는 했지만 수사학에 도덕성을 부여하며 사람들에게 수사학을 가르쳤다. 그는 화술은 인간에게 고유한 기술이며 적절한 말은 정확한 사고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했다. 이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가르침은 다분히 인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소크라테스에게 수사학은 직업훈련이 아니라 이른바 ‘일반교양’이었고 그가 이름 붙인 대로 ‘철학’이었다.¹³⁾

이에 대해 플라톤은 수사학은 철학이 아니며, 애당초 수사학이 주장해온 것처럼 화술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고르기아스』와 『파이드로스』는 수사학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이 잘 드러난 저서인데 수사학자인 콘살레스 베도야는 이 두 대화론에서 드러난 플라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소피스트 수사학은 학문이 아니라 비도덕적 실용주의에 빠진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는 이것의 영역이 사실임직한 것, 그럴 듯한 것, 개연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것이 이성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학은 ‘기예’가 아니라 ‘숙련’이라 불려야 하며,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¹⁴⁾ 플라톤의 이러한 생각은 수사학과 철학 사이에 균열을 조장했고, 이 균열은 어느 편에서나 완전하게 매워지지 않았다.¹⁵⁾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는 수사학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수사학과 철학 사이의 균열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는 수사란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나 기술인 만큼 논리에 못지 않게 지적 엄격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⁶⁾ 수사학에 특성을 부여하고 수사학적 체계를 지식과 교육의 체

10) 올리비에 르볼, 같은책, pp.19-20.

11)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 외, 같은책, pp.20-21.

12)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1999, p.20.

13) 올리비에 르볼, 같은책, pp.23-25.

14)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 같은책, p.29.

15) 올리비에 르볼, 같은책, pp.25-26.

16) 김옥동, 같은책, pp.21-22.

9) 김현 편, 같은책, p.22.

계, 즉 문화에 통합시킨 최고의 수사학 저서로 평가를 받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은 객관적 논증에 관한 논리적 이론이고, 제2편은 심리 발현술, 즉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논증의 이론이며, 제3편은 미사여구법의 문학적 이론이다.¹⁷⁾

박성창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그리스에는 플라톤과 소피스트의 수사학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논쟁적 공간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았다. 수사학의 역사를 고대 수사학, 고전 수사학, 현대 수사학으로 구분한 박성창은 고대의 수사학은 다시 그리스 수사학과 라틴 수사학으로 양분되며 이를 관통하는 핵은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이라고 보았다. 그는 고대의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라는 삼분법이 가능할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지니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¹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수사학은 정착되었고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와 같은 로마 시대의 수사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학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그리고 이 체계는 고대부터 19세기까지 존속했다.¹⁹⁾ 하지만 그리스 수사학에서 라틴 수사학으로 넘어가면서 수사학은 점차 설득의 도구로 정의되기보다는 미학적이고 문학적인 기능 속에서 정의되기 시작했고 점차 학교 교육과 연관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수사학이 학교에서 교육되는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학 개본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롤랑 바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식 수사학의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신에게서, 그 실천은 키케로에게서, 그 교육법은 퀸틸리아누스에게서, 그 변형은 『승고미에 대하여』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⁰⁾고 말했다.

퀸틸리아누스가 수사학 교육자로 활동했던 1세기 로마에서 수사학 교육은 모든 학문의 요체로 간주되었으며 그 목표는 단지 달변가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훌륭한 로마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²¹⁾ 88년경 퀸틸리아누스는 변론가들의 입문서인 『수사학 강론』을 저술하기 위해 교육 일선에서 은퇴했는데 1416년에 이탈리아의 인문학자인 포조 브라치올리니에 의해 이 책이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책이 발견된 이후 유럽에서 퀸틸리아누스의 명성은 점점 커져갔고, 『수사학 강론』은 그 전까지의 모든 수사학 교육을 종합하고 조절한 교육 계획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었다.²²⁾

1-2. 중세 이후 근대까지의 수사학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 19세기 후반²³⁾에 이르는 긴

17)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 외, 같은책, p.35.

18) 박성창, 같은책, pp.124-125.

19) 올리비에 르볼, 같은책, p.28.

20) 박성창, 같은책, p.143.

21) 박성창, 같은책, pp.145-146.

22) 박성창, 같은책, p.69.

시기를 고전 시기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수사학은 고대 수사학의 영향하에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세 수사학 교육의 기초를 이룬 로마 수사학 책들로는 키케로의 『변론가에 대하여』와 『주제 설정법』, 익명의 『헤레니우스에 바치는 수사학』,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강론』 등이 있는데 이중 퀸틸리아누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의 『수사학 강론』은 중세 동안 수사학의 교육, 이론화, 실질 응용의 기준 역할을 했다.²⁴⁾

중세 시대에 수사학은 문법학, 논리학과 더불어 3학문의 한 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후에 음악, 산술, 기하학, 천문학(혹은 의학) 등의 4학문과 합쳐져 오늘날 고등교육의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자유 7과를 이루며 중세 학문의 뼈대를 이루었다.²⁵⁾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 수사학은 인문주의 교육을 위한 최고의 학문으로 자리잡으면서 문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수사학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과학적 방법론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실증주의 이론과 형태논리학이 이 시기에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학이 철학적인 관심을 상실하고 표현술로서만 축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문학비평가 제라르 주네트는 고대 그리스 수사학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수사학의 역사를 축소화의 맥락에서 정리한 『줄어드는 수사학』이라는 글을 『코뮤니카시옹』 제16호(1970)에 발표했다.

1-3. 20세기 중반 이후의 수사학 이론

제라르 주네트가 『줄어드는 수사학』을 발표한 『코뮤니카시옹』 제16호는 20세기 현대 수사학 논의에서 중요한 책이다. 주네트는 예전에는 전통 수사학이 있었듯이 현대에는 현대의 수사학이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수사학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거나 탐구하려는 노력보다는 과거의 수사학을 이른바 ‘현대의’ 수사학에 봉사하도록 하는 작업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보았다.²⁶⁾ 이 책에는 주네트의 글 외에도 20세기 중반 이후 다시 활발한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된 수사학의 새로운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10여 개의 글이 실려 있다.²⁷⁾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대 수사학은 논의의 범위와 방향 그리고 연구의 성과가 그 자체로도 광범위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접학문과의 학제적 상관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

23) 1885년에 프랑스에서 수사학이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것은 19세기에 이르러 수사학이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수사학 교육이 존속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매우 축소된 의미에서였다.

24)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 같은책, p.79.

25) 김옥동, 같은책, p.25.

26) 박성창, 같은책, p.189.

27) 『코뮤니카시옹』 제16호에 실린 글은 다음과 같다: 장 코망의 『문체 이론』, 츠베탕 토도로프의 『제유』, 진 시어리의 『가장된 오류와 미분적 논리』, 클로드 브로몽의 『영향을 주는 자의 역할』, 뤼 그룹의 『특수 수사학』, 자크 두랑의 『수의 수사학』, 리디아 손짜의 『첫머리말의 반복과 이야기』, 피에르 쿠엔즈의 『수사학 혹은 일탈시킴』, 제라르 주네트의 『줄어드는 수사학』, 롤랑 바르트의 『옛날의 수사학』.(김현, 같은책, p.15.)

문에 여기에서는 디자인 수사학 논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코뮤니카시옹』 제16호에 실렸던 바르트, 토도로프, 주네트의 글을 국내에 번역, 소개한 바 있는 김현은 구조주의 연구방법론에서 수사학의 용어들을 조금씩 차용하면서 19세기 후반 이후 쇠퇴했던 수사학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현대 수사학의 접근 방식을 옛날의 수사학을 다시 체계화하는 작업, 옛날의 수사학을 한 두 개의 기본적인 문체로 축소시키는 작업, 그리고 옛 수사학의 어휘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구분했다.²⁸⁾

박성창은 현대에 들어 수사학이 재평가되는 이유로 대중사회의 출현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부각, 그리고 이데올로기 붕괴와 권위의 해체라는 측면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수사학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인문과학의 방법론적 쇠퇴와도 긴밀한 연결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전통적인 수사학이 중세의 3학문 또는 7학문 체계 속에서 인접 학문들과의 구조적인 작용을 통해 파악되어 온 것처럼 현대의 수사학 역시 문체론·시학·언어학·철학·문학비평·논리학 등 인문과학의 제반 학문들과의 구조적인 작용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과 그것을 다루는 관점의 쇄신을 기해왔다고 말했다.

주네트의 「줄어드는 수사학」이 실렸던 『코뮤니카시옹』 제16호에 「옛날의 수사학」이라는 글을 발표한 롤랑 바르트는 이후 광고 이미지나 영화 이미지 등 대중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의 수사학을 다루면서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수사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사물도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물들 속에서 수사학을 찾았다.²⁹⁾ 크리스티앙 메츠, 움베르코 에코 역시 이러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현대 수사학이 철학적·법률적·언어학적·문학적·기호학적·화용론적 이론과 심지어는 정보와 대중 통신의 기술들을 상호 연관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총체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2장 20세기 후반의 디자인 수사학 논의와 그 적용

김옥동은 『은유와 환유』(1999)에서 옛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온 논리학과 수사학의 싸움이 서구 철학이 발전해오는데 중요한 동력의 구실을 맡아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미국의 수사 이론가인 리처드 랜햄의 이

28) 옛날의 수사학을 다시 체계화하는 작업은, 예를 들어 폼타니에의 옛 저술을 주네트가 새로이 펴내듯이, 옛 수사학의 고전을 재검토하거나, 수사학의 흥기에서 사멸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하게 따라가는 작업이며, 옛날의 수사학을 한 두 개의 문체로 축소시키는 작업은 여러 사항을 내적으로 총괄하는 단일성을 찾기 위한 작업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와 환유로 모든 문체를 축소화하거나, 토도로프처럼 제유로 축소화하는 유형의 작업이다. 위의 작업은 인간 정신의 기본 유형들이 결정되어야 확연하게 해결될 수 있는 작업이지만 매우 흥미있고 유익한 작업이다. 옛 수사학의 어휘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주네트의 이야기 분석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수사학의 어휘들과 정신분석학의 어휘들을 겹치려는 라캉, 바르트의 노력에서도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그 노력은 대개 유사성에 의거해 있어, 그 어휘들은 은유적인 어휘들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김현, 같은책, p.11.)

29) 올리비에 르블, 같은책, p.47.

론을 통해 이 두 전통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랜햄은 인간을 크게 ‘호모 세리오수스(진지한 인간)’와 ‘호모 레토리쿠스(수사적 인간)’의 두 갈래로 나누었는데 진지한 인간은 중심적인 자아와 확고한 동일성을 지니는 반면, 수사적 인간은 한낱 배우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그의 행동은 연극적인 데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랜햄에 따르면 “진지한 인간의 편에서 보면 모든 수사적 언어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편 수사적 관점에서 보면 투명한 언어는 이 세계에 대하여 부정적하며 거짓 말을 한다.”³⁰⁾

랜햄이 분류한 진지한 인간과 수사적 인간의 관계는 마치 20세기 후반에 디자인 분야에서 대두되었던 모더니스트 디자인어들과 포스트모더니스트 디자인어들 간의 격렬한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디자인에 있어서 수사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시점이 포스트모던 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쳐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 기 본시페와 시각 수사학

제품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분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는 하이퍼 미디어와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어 디자인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기 본시페는 199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네델란드의 안 반 아이크 아카데미(Jan van Eyck Academie)의 주최로 열렸던 <디자인을 넘어선 디자인 Design beyond Design> 학술대회와 그 다음 해에 출판된 동일한 제목의 책³¹⁾을 통해서 디지털화 과정이 가져오게 될 변화를 예측하면서 과학과 인지는 점차 이미지와 시각화와 같은 시각영역에 의존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미지는 예전처럼 단순히 텍스트를 빛내주는 부차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텍스트와 동등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화 과정의 복잡한 현상을 다루는 새로운 학문으로서 ‘이미지 과학 image science’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거기에서는 이미지가 단지 텍스트의 단순한 모방 mimesis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언어와 텍스트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실체를 드러내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각 디자인이건 산업 디자인이건 간에 모든 디자인은 결국 인터페이스 디자인 interface design이라고 보는 기 본시페는 디지털 기술을 전제로 한 이미지 과학에 상응하는 새로운 디자인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보 디자인 information design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그는 이 용어가 종래의 말과 그림, 이미지와 텍스트간의 이분법을 피해 디지털 매체에 적합한 통합적인 개념을 표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과학의 필요성에 대한 기 본시페의 논의는 시각 디자인의 전통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방향이라기보다는 시각 디자인 논의의 시대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 것이며 디자인

30) 김옥동, 같은책, p.19.

31) Jan van Toorn (ed.), Design beyond Design: Critical Reflection and Practice of Visual Communication, Jan van Eyck Akademie, 1998.

작업을 통해 디자이너는 시각언어에 대한 이해와 시각적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와서 더욱 부각되고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앞서 제기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여러 가능성들이 미래 사회에서 디자인의 중요성과 디자이너의 역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기 본시페는 울름조형대학의 교수였던 1965년에 이미 「시각/언어 수사학」이라는 글을 통해 광고에서의 설득력을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수사학의 문체figures와 그 사용의 범주를 제시한 바 있었다.³²⁾ 언어 수사학의 기초 위에 시각 수사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그의 시각/언어 수사학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하노 H. J. 에세스Hanno H. J. Ehses나 로빈 킨로스Robin Kinross 등을 통해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연구방법론으로서 제시된 바 있고, 최근에는 생 주스트 아카데미St. Joost Academy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되기도 했다.

캐나다의 노바 스코티아 미술대학의 하노 H. J. 에세스는 「맥베드의 형상화: 시각 수사학에서의 사례 연구Representing Macbeth: A Case Study in Visual Rhetoric」³³⁾라는 글을 통해 수사학 원칙들을 시각 디자인 작업에 적용시킨 사례를 발표했다. 이 글은 도입, 디자인과 수사학의 원칙들, 개념 형성에서 시각 형태까지, 수사학적 문체의 시각적 복제 등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에세스는 맥베드 포스터 디자인 작업에 현대의 기호학과 수사학 이론을 도입하여 개념 형성의 방법론적 작업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상장에 관한 학문인 기호론은 메시지 속의 상징의 구조와 그 활용에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설명하며, 설득의 예술인 수사학은 적절한 메시지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로빈 킨로스는 1984년 12월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정보 디자인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중립의 수사학The Rhetoric of Neutrality」³⁴⁾이라는 글을 통해 정보 디자인에 있어서 시각 수사학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로빈 킨로스가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주목했던 것은 기 본시페가 「시각/언어 수사학」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정보를 제공하는 주장은 적던 말던 간에 수사학과 관련을 맺게 된다. 수사학이 없는 정보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과 완전한 침묵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몽상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한’ 정보라는 것은 디자이너들에게는 오직 무미건조한 추상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디자이너가 그것에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하고, 경험의 영역 안에 들여놓기 시작하자마자 수사학적 침투의 과정이 시작된다.” 킨로스는 1920년대의 런던 북동지역 철도와 1930년대의 네델란드, 그리고 1960년대의 울름,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는 정보 디자인의 흐름을 고찰하면서 어떠한 디자인도

수사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에세스나 킨로스의 연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 본시페의 「시각/언어 수사학」은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기호학 이론이 그래픽 디자인이나 정보 디자인 등의 분야에 유용한 개념의 틀이나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2. 리처드 부캐넌과 디자인 수사학

기 본시페 이래 수사학적 방법론을 시각 디자인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최근까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 리처드 부캐넌은 커뮤니케이션은 디자인 연구의 중심적인 개념이며 통합적인 수사학 이론은 시각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이나 건축, 도시계획 등 디자인의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커뮤니케이션과 수사학이라는 주제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모든 대상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수많은 역사적, 사회적, 미학적, 문화적 디자인 연구들에서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층이나 사회 전반에 대한 디자이너와 디자인의 영향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사학적인 접근방식은 매우 유용한 관점을 지니며 이는 통합적인 디자인 교육철학과 교과과정의 개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³⁵⁾ 그의 주장이 잘 드러난 글로는 「디자인에 의한 선언: 디자인 실무에서의 수사학, 논증, 예시Declaration by Design: Rhetoric, Argument and Demonstration in Design Practice」³⁶⁾와 「새로운 교양학문으로서 디자인Design as a New Liberal Art」³⁷⁾, 그리고 「수사학, 휴머니즘, 그리고 디자인Rhetoric, Humanism, and Design」³⁸⁾ 등이 있다.

<디자인의 발견Discovering Design>을 주제로 1990년 11월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부캐넌은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는 20세기에 출현한 하나의 인문학으로서 생산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다루는 산업 문명의 연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이끌었는데 이는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사이먼은 『인공물의 과학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³⁹⁾이라는 저서를 통해 새로운 생산적 목적에 대한 이론과 실천에 기여하는 인공물의 과학으로서의 디자인 과학 science of design을 제시한 바 있다. 허버트 사이먼의 의견에 동조하는 부캐넌에게 있어서 20세기 디자인의 발전은 곧 인공 세계의 개념설정과 계획을 향한 새롭고 다양하며 광범위한 수사학적 탐구라고 할 수 있다. 부캐넌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20세기 테크놀러지 시대가 디자인에게 요구하는 교양 예술과 통합 학

32) Teal Triggs (ed.), *Communication Design: Essays in Visual Communication*, Batsford, 1995, p.122.

33) Hanno H. J. Ehses, "Representing MacBeth: A Case Study in Visual Rhetoric", Victor Margolin (ed.), *Design Discourse: History, Theory, Critic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187-197.

34) Robin Kinross, "The Rhetoric of Neutrality", Victor Margolin (ed.), *ibid.*, pp.131-143.

35) Victor Margolin (ed.), *ibid.*, p.91.

36) Victor Margolin (ed.), *ibid.*

37) 리처드 부캐넌, 새로운 교양 학문으로서 디자인, 디자인교육 2001, 디자인미술관, 2001, pp.74-83.(Richard Buchanan, *Design as a New Liberal Art*, Papers: Conference on Design Education, 1990, pp.12-17.)

38) Richard Buchanan and Victor Margolin (ed.), *Discovering Design: Explorations in Design Stud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39) Herbert Simon,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 MIT Press, 1969.

문으로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다른 학문 분야들과는 달리 디자인 연구의 주제는 규정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제품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자인 제품의 시학(poetics of products)은 제품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디자인 제품의 수사학은 제품이 하나의 운반체로서 어떻게 사적·공적 생활이 지닐 수 있는 바람직한 특성에 대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자에게 설득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품 시학과 제품 수사학의 상호작용이 디자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또한 디자인이 다른 분야들과 구분되는 학문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지만 그 기원은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본 부캐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적 과학(poetic science)' 혹은 '시학(poetics)'은 문학예술에 대한 이론일뿐만 아니라 모든 제작행위에 연관된 특정한 재료, 생산기술, 형태 및 목적에서 비롯된 예술 생산방식들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수사학은 단순히 언어의 예술로만 인식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표현의 운반체인 언어를 통해 결과물을 구체화하는 사고와 논쟁의 기술로 인식되었고 수사학의 핵심 기술들은 역사, 드라마, 시학, 정치적 및 사법적 연설, 기도문, 종교적 설교와 같은 모든 언어적 제작 형식에 체계적 설계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고 보았다.

수사학과 제작술의 관계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는데 이는 서구에서 교양 학문이 발전해온 과정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리처드 부캐넌은 서구 문화에서 교양 학문은 고대 그리스에서 창안되었고, 로마 시대에 체계화되었으며 중세에 이르러 3학문(문법학, 논리학, 수사학)과 4학문(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을 통해 학문 규범으로 재구축되었고, 르네상스 시기에 와서 오늘날과 같은 성격을 띄게 되었다고 정리하였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되고 확장된 교양 학문이 19세기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했지만 그와 동시에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교양 학문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디자인 사고는 이러한 연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서 부캐넌은 「새로운 교양 학문으로서 디자인」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기초과정의 새로운 점검.

둘째,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테크놀러지와 컴퓨터의 새로운 적용.

셋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디자인 교과과정의 변경.

넷째, 디자인 연구(디자인사, 디자인 이론, 디자인 비평)를 디자인 전공 및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것.

새로운 교양 학문으로서의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

편 부캐넌은 디자이너들이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제품의 유형보다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고의 출발점을 찾는 범주들이며 이러한 범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상징적·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the design of symbolic and visual communication, 물적 대상 디자인 the design of material objects, 활동과 서비스 디자인 the design of activities and services, 복합적 시스템이나 일상적 생활, 일, 놀이, 학습을 위한 환경 디자인 the design of complex systems or environments for domestic life, work, play or learning.⁴⁰⁾ 부캐넌은 디자이너가 이런 범주들을 어떻게 뒤섞고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디자인 사고에 있어서 발견과 발명에 직결된다고 보았다.⁴¹⁾

2-3. 생 주스트 아카데미의 디자인 교육

네델란드의 브레다에 위치한 생 주스트 아카데미 St. Joost Academy에서 1995년부터 이루어졌던 그래픽 디자인 교육은 기 본시페나 하노 H. J. 에세스, 로빈 킨로스 등의 시각 수사학 연구와 리처드 부캐넌의 디자인 수사학 연구를 구체적인 디자인 교육 현장에 적용시킨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생 주스트 아카데미에서는 부캐넌이 설정한 디자인 범주들 중 상징적·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영역에 시각 수사학적인 접근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그래픽 디자인 교육 방식에 있어서 혁신적인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최근 5년간의 교육 성과를 『카피 프루프: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방법 Copy Proof: A New Method for Design Education』⁴²⁾이라는 책에 담아 2000년에 출판을 했다. '포스트-생 주스트 Post-St. Joost'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교육 프로그램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기술의 변화와 정보 교환 및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새로운 패턴의 등장,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디자인 이론과 실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작되었다.

포스트-생 주스트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시각 에세이 visual essay와 시각 수사학 visual rhetoric을 새로운 그래픽 디자인 교육 방법론으로 적극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포스트-생 주스트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휴구에 C. 보에크라드 Hugues C. Boekkra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리처드 부캐넌, 기 본시페, 로빈 킨로스, 하노 에세

40) Edith Gruson and Gert Staal (ed.), *Copy Proof: A New Method for Design Education*, 010 Publishers, 2000, p.6.

41) 리처드 부캐넌은 발견은 발견되기를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어떤 대상의 존재를 가정하며, 실험을 통해 특정한 결과가 증명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고 설명하면서 자연과학에는 일종의 규정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디자인의 연구 주제는 이와 달리 철저하게 비규정적이고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접근할 때조차 다양한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견보다는 발명과 창조의 속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자연의 과정과 법칙을 발견하지만,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는 특정한 생산물에 적합한 새로운 사용법이나 응용 가능한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것이다.

42) Edith Gruson and Gert Staal (ed.), *ibid.*

스는 모두 시각 수사학의 한가지 형태로써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언급을 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그들은 이 시각 수사학을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실습이나 과제를 구성하기 위한 매트릭스로서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수사학은 순수하게 디자인 이론의 한 요소에 불과했다. 1995년 이후 브레다에 위치한 생 주스트 아카데미에서의 대학원 과정의 디자인 교육을 특징짓는 분명한 특성 한 가지는 이론과 실기 수업간의 상호 통합이다. 포스트-생 주스트 프로그램의 첫 4년 동안 디자이너인 제라르 하데스 Gerard Hadders, 에디스 그루슨 Edith Gruson과 나 자신(디자이너로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로서의 디자인 실천에 더 친숙한)은 디자인 작업만을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함께 해왔다. 1996년에 우리는 시각 수사학을 목표로 설정하고 디자인 방법론의 하나로서 시각 에세이를 채택했다.⁴³⁾

시각 수사학으로서의 그래픽 디자인 graphic design as visual rhetoric을 지향하는 포스트-생 주스트 프로그램은 기존의 대학원 교과과정과 달리 매체 중심적 교육을 탈피하여 구성되었는데, 이는 기술적·경제적·문화적 혁신에 개방적이며 동시에 이에 저항하는 디자인 방법론과 주제를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년 과정의 이 프로그램은 3학기제로 운영되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아이덴티티, 공공영역과 도시공간, 제안과 반(反)제안 등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을 초청하여 이론적인 학습과 실습을 겸하게 된다. 그후 2학년 과정의 1년은 3학기 모두가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1학년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세 개의 주제는 상호연관된 것으로 학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디자이너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복잡성으로부터 점차 도시로, 그리고 디자인 상황 전체로 자신의 시각을 발전시켜나가게 되며 '나-우리-그들-I-we-they'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요리라 할 수 있다.⁴⁴⁾ 『카피 프루프: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방법』에 소개된 포스트-생 주스트 프로그램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 기초과정

(1) 1학기

- 주제: 아이덴티티
- 초청강사: forensic detective, 고고학자, 기업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미디어 트레이너, 박물관 큐레이터
- 실습과제: forensic portrait, 가상의 초상화, 3개의 사각형

43) Edith Gruson and Gert Staal (ed.), *ibid.*

44) 본 연구는 현대 디자인과 수사학, 그리고 디자인 수사학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생 주스트 프로그램의 과목별 진행 방식과 내용,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되었다. 본 연구자는 디자인 수사학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포스트-생 주스트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사학적 접근 방식의 디자인 사례와 디자인 교육 사례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이론: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기호학 입문

(2) 2학기

- 주제: 공공영역과 도시공간
- 초청강사: 디자이너, 건축가, 시각예술가, 사진가, 영화제작자
- 실습과제: 지표와 의미; 시각에세이
- 이론: 건축의 역사와 도시개발, 도시답사(역사적 도시, 모던 도시, 재건축된 도시, 포스트모던 도시)

(3) 3학기

- 주제: 제안과 반제안
- 초청강사: 문학가, 번역가, 저널리스트, 에세이스트, 편집인, 타이포그래퍼, 언어학자
- 실습과제: 시각 에세이, 도시 공간에서의 시, 워크샵(영화 시나리오,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인포그래픽스)
- 이론: 시학 개론, 표상(representation)의 역사

2학년 졸업 프로젝트의 범주⁴⁵⁾

- 저널리즘과 수사학(Journalism & Rhetorics)
- 지표와 의미(Index & Meaning)
- 시와 제품(Poetry & Product)
- 이야기와 집단성(Story & Collectivity)
- 정상성과 가독성(Normality & Legibility)

맺음말: 디자인 수사학과 디자인학의 가능성

폴런 스파크스는 문화연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문화연구에 대하여 뚜렷한 경계선을 긋는 것과 적절한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어느 것으로도 문화연구의 단일한 이론이나 방법론을 지적하고 단일한 이론이나 방법론으로써 문화연구를 특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학비평, 사회학, 역사학, 미디어연구 등에서 적당히 모아놓은 관념들, 방법들 및 개념들이 문화연구라는 편리한 이름으로 함께 수렴되고 있다.⁴⁶⁾

존 스토리가 『문화연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서문을 쓰면서 인용한 스파크스의 글은 학문으로서의 디자인과 디자인 연구의 개념 규정 문제와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토리는 학위 프로그램, 저널, 학술대회 및 학회를 지칭하는 제목이나 명칭들에서 그 용어가 나타난다 할

45) Edith Gruson and Gert Staal (ed.), *ibid.* 이 책에는 앞에 예시된 다섯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10개의 졸업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있고, 각 범주에는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평적 에세이가 실려 있다.

46) 존 스토리 편 (백성기 역),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p.22-23.

지라도 '문화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으며 문화연구에 대한 개념 규정(정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았다. 그는 새로운 분야가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대상이 있어야 하고, 둘째,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가정들이 있어야 하며, 셋째, 학문 분야 자체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⁴⁷⁾

지난 수십 년간 문화연구자들이 고민해온 이러한 문제는 최근 디자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과 그 맥이 닿아 있다. 디자인 연구자들 역시 디자인학의 가능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10월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던 제5회 아시아디자인학술대회(ADC 2001 SEOUL/ The 5th Asia Design Conference)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디자인 연구와 실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 기조 발제를 맡은 영국의 디자인 연구자 나이젤 크로스 Nigel Cross는 「디자인/학문/연구: 학문의 발전 Design/Science/Research: Developing a Discipline」이라는 글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디자인학은 다른 학문, 예술 분야와는 다른 '디자인다운 사고방식 designerly ways of knowing'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⁴⁸⁾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합적 디자인 개념을 중시하는 기 본시페의 논의나 새로운 교양학문으로서의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현대적 의미의 수사학으로서의 디자인을 주장하는 리차드 부캐년의 논의는 나이젤 크로스가 제시한 '디자인다운 사고방식'의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 주스트 아카데미의 대학원 과정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이루어졌던 새로운 디자인 교육은 시각 수사학을 바탕으로 통합 학문으로서의 디자인의 가능성을 담론의 수준에서만 아니라 디자인 교육과 실천의 영역에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디자인 수사학에 대한 연구와 실험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디자인 수사학 역시 아직 그 개념적 정의나 경계가 불분명하고 디자인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 또한 충분히 검토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몇몇 사례에서와 같이 디자인 수사학은 디자인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매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디자인 수사학은 디자인 연구를 오랜 역사를 지닌 타 학문 분야의 전통과 접목시키고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는 이제 언어적인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미지까지도 수사학의 범주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디자인 교육이나 디자인 비즈니스의 현장에까지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자인 수사학과 같은 디자인 연구방법론을 계속 개발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주, 김상규, 박해천 편, 디자인교육2001, 디자인미술관, 2001.
- 강현주, 영상 이미지 교환으로서의 디자인 수사학, 조형,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제22호, 1999.
- 게레로,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외 (강필운 역), 수사학의 역사, 문학과지성사, 2001.
-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1999.
- 김현 편,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1985.
- 르블, 올리비에 (박인철 역), 수사학, 한길크세주, 1999.
- 바르트, 롤랑, (김주환, 한은경 역), 기호의 제국, 민음사, 1996.
-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 박영원, 디자인기호학, 청주대학교출판부, 2001.
- 박우수, 수사학과 문학, 동인, 1999.
- 스토리, 존 편 (백선기 역),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영상문화학회 창립준비위원회 편,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의나무, 1999.
- 채승진, 디자인의 연구와 실무: 제5회 아시아디자인학회 심포지엄, 디자인네트, Vol. 51, 2001년 12월호.
- 크로스하이트, 제임스 (오형엽 역), 이성의 수사학: 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헬러, 스티븐, 카렌 포메로이 (강현주 역), 디자이너 세상을 읽고 문화를 움직인다, 안그라픽스, 2001.
- Buchanan, Richard and Margolin, Victor (ed.), *The Idea of Design: A Design Issues Reader*, The MIT Press, 1995.
- Buchanan, Richard and Margolin, Victor (ed.), *Discovering Design: Explorations in Design Stud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Gruson, Edith and Staal, Gert (ed.), *Copy Proof: A New Method for Design Education*, O10 Publishers, 2000.
- Margolin, Victor (ed.), *Design Discourse: History, Theory, Critic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Meggs, Philip B., *Type & Image: The Language of Graphic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1992.
- Toorn, Jan van (ed.), *Design beyond Design*, Jan van Eyck Akademie, 1998.
- Triggs, Teal (ed.), *Communication Design: Essays in Visual Communication*, Batsford, 1995.

47) 존 스토리 편 (백선기 역), 같은책, pp.22-23.

48) 채승진, 디자인의 연구와 실무: 제5회 아시아디자인학회 심포지엄, 디자인네트, Vol. 51, 2001년 12월호, pp. 146-147.